

제4장. 받침과 이어내기현상과 관련한 발음

제9항. 모음앞에 있는 받침은 뒤소리마
디의 첫소리로 이어서 발음한다.

1)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나 뒤불이앞에 있는
받침은 이어서 발음한다. 들받침의 경우에는 왼
쪽받침을 받침소리로, 오른쪽받침을 뒤모음의 첫
소리로 발음한다.

례: - 높이[노피], 삼발이[삼바리]
- 몸에[모메], 밭으로[바트로], 꽃
을[꼬츨]
- 젖어서[저저서], 갔었다[가췌따],
씻으며[씨스며]
- 닭을[달글], 굶이[골시], 값에[갑세]
- 맑은[말근], 밭아[발바], 읊어[을
퍼], 젊은이[절므니]

그러나 부름을 나타내는 토 《-아》 앞에서 받
침은 끊어서 발음한다.

례: 밭아[벌아→버다], 꽃아[꼴아→꼬다]

2) 한자말에서 모음앞에 놓이는 받침은 모두
이어서 발음한다.

례: - 검열[거멸], 답안[다반], 국영[구
경], 월요일[워료일]
- 8.15[파리로], 3.14[사밀싸]